

민주 원로들 '불공정 공천' 유감·비명도 반발...이재명 의총 불참

김부겸·임채정·김원기·문희상 등 "공정한 공천 촉구" 이재명, 의총에 모습 드러내지 않아...비명계 거센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공천 논란에 대한 당 원로들의 유감 표명과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이재명 대표는 2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 창당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통보를 진행 중인 만큼 공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는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하며 지도부의 책임을 거론할 예정이었

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2선 후퇴와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 10%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하위 20%에 포함된 김영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 원로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최근 공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표에게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김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의장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한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불공정한 공



전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해외 체류로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원로들과 뜻을 같이 한다

는 의사를 김 전 총리 측에 전했다고 한다. 김희면기자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박균택 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경선지역으로 광산갑 1곳이 포함돼 전체 8곳 중 6곳의 경선 구도가 짜여졌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전체 선거구 10곳 중 단 한 곳도 경선 일정이 잡히지 않아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광주 광산갑 공천심사를 통해 이용빈 현 의원과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를 경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광주지역은 전체 선거구 8곳 중 서구갑과 서구을을 제외한 6곳의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동남갑과 북구갑, 북구을은 지난 19일부터

광주 8곳 중 6곳 경선

이날까지 경선투표를 하고 오후 10시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남을과 광산을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한다.

광산갑은 선관위 후보 등록 후 3월 초경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남지역 선거구 10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경선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선거구 확정 지연된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선거구 개편과 관련이 없는 고흥·보성·장흥·강진,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경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민주당의 투명하지 못한 공천 관리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가 친명과 비명, 친문 간 계파 싸움이 이어지면서 공천 관리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천 파열음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택기자

이재명 "의대 순차 증원이 마땅...파업 즉각 중단해야"

"윤 '후퇴없다' 발언, 강대강 대치만 심화시켜" "의사 파업 옳지 않아...국민 건강권 확보 우선" "법률 위반한 고리 대부업 계약 무효화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3월에 과연 2000명,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 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사들 파업 옳지 않다"며 "파업 또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

라며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 라인인 40대, 50대 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퍼져 있다. 사회 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의 고리 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를 무효화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며 "나중에 총선 이기면 하겠다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라고 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